

강용원 교수의 교육신학과 목회상담신학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과 구조

*Main Concepts and Structure of Kang
Yong-Won's Theological Works both on the
Christian Education and on the Pastoral
Counseling*

조성국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목 차

1. 들어가면서 | 60
2. 개혁주의신학: 칼빈과 성경 | 64
3. 교회교육과 교육목회 | 67
4. 교회교육방법 | 71
5. 목회상담신학: 죽음과 사랑 | 73
6. 나가면서 | 76



Abstract

Main Concepts and Structure of Kang Yong-Won's Theological Works both on the Christian Education and on the Pastoral Counseling

Joh, Song-guk (Kosin University)

Prof. Kang Yong-Won is a pioneer and representative theologian of Christian education and pastoral counseling in Kosin University and Kosin Presbyterian Churches. His life, teaching and studies can be well understood in terms of a few main concepts and pattern. The conspicuous concepts are identified as (1) Reformed theology, based on John Calvin, the Bible, and the Biblical hermeneutic methodology, (2) church education and educational ministry, (3) teaching methods of Christian education, and (4) pastoral counseling theology, focused on death and love. Prof. Kang's academic works in each topic start from the Reformed basic definition of each concept, walk around all the elements and phenomena of the subject, and even pass over to the other related academic region. Then, he summarizes most of the problems and the results in a textbook.

Prof. Kang has been recognized by his teacher, friends, staffs

and students (1) as a good model student and professor, being always ‘good and modest’, (2) as an ‘oikoumenikos’ scholar, both respecting the Reformed faith and tradition, and recognizing other academic results with unprejudiced attitude, (3) an ardent and able worker, having successfully done many and difficult tasks within a limited time. I am convinced that he be also remembered as a faithful servant to the Lord in the future, just as he wished himself to confess the same response of the faithful servant in his heartfelt sermon (Luke 17:10), delivered to the staffs of Kosin University just before his retirement.

Key words | Kang Yong-Won, Christian Education, Educational Ministry, Teaching Methods of Christian Education, Pastoral Counseling

1. 들어가면서

강용원 교수(1950-)는 고신대학교에 기독교교육과가 설치(1977)된 직후인 1982년부터 정년퇴임의 2015년까지, 약 34년 동안 줄곧 기독교교육과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교육하고 연구해온 선구적인 교육신학자이다. 기독교교육과 초기교수들이 교육학의 토대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새로운 학문으로 구축되고 있었던 기독교교육학 연구에 접근한 교육학자들이었던 것과 달리, 강용원 교수는 신학의 토대로부터 기독교교육학 연구에 접근한 첫 번째의 신학자였다. 따라서 그는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고신교단 교회교육의 학문적 전문화에 특별한 기여를 해 온, 고신교단의 선구적인 교육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독교교육학계에서 강용원 교수는 줄곧 고신교단을 대표하는 기독교교육학자로 인정받아 왔다. 그는 고신교단에서 전국 규모의 기독교교육학회 활동을 시작한 첫 학자였다. 이후 고신대학교의 다른 기독교교육학자들도 점차 한국기독교교육학회에 참여하여 타 교단 기독교교육학자들과 더불어 학문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획의 교과서 내지 연구서 출판계획에 참여하여 모두 5권의 학술연구저서를 출간하였고, 일찍이 해당 학회의 회장(2000-2001)을 역임하였다. 그는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의 창립에도 참여하였고, 해당 학회의 회장(2006-2008)도 역임하였다. 보수와 진보를 모두 포함하는 우리나라 진보적 기독교신학계 및 기독교교육학계에서, 그리고 복음주의신학계 및 기독교교육학계에서 그 동안 그는 고신교단을 대표하는 기독교교육학자로 인정받아 온 셈이다.

강용원 교수의 생애와 교육, 그리고 학문 활동을 검토하면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인건 그가 줄곧 관심을 집중해 온 몇 가지의 주요 주제가 드러나는데, 그 주제들은 그의 기독교교육신학의 주요 개념과 사상의 틀이 된다. 그의 교육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주제는 그의 교육신학의 출발점이면서 연구방법이 되어 온, 개혁주의신학, 특히 칼빈과 성경이고, 두 번째 주제는 그의 교육 연구의 관심범위가 되어 온 교회교육과 목회신학이며, 세 번째 주제는 그의 연구의 실제적 초점이 되어왔던 교회교육방법이고, 네 번째 주제는 목회상담신학과 교육의 대상인 인간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반영하는 죽음과 사랑이다.

동시에 강용원 교수의 생애와 교육, 그리고 학문 활동을 검토하면 위의 주제를 포함하여 그가 관심을 기울였던 개념들의 범주 안에서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언제나 출발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경계를 넘어 영역을 확장해 가려는 일관성 있는 형식이 드러난다.

첫 번째로 신앙과 신학의 이해에 있어, 그는 고신교단이 고백하는 개혁신앙 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신앙을 언제나 잘 견지하면서도 그 신학 이해의 범위 안에 머물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 신학적 이해의 지평을 확장해 나갔다. 그는 개혁주의신학에서 출발하여 개혁주의 입장을 잘 견지하면서도 신정통신학의 이해, 그리고 현대신학의 이해로 신학연구의 지평을 계속 넓혀나갔다. 그는 신학 연구의 범위를 다 이해해보고 싶어 하였다. 그가 신학교육을 위해 선택한 고신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그리고 취리히대학교는 그 확장의 순서이며, 그가 고신대학교에서 일 해왔다는 공간적 위치는 그의 머문 신학입장과 동일하다.

두 번째로 인간교육연구에 대한 관심에 있어, 그는 교육학으로부터 출발하여 줄곧 교육에 집중하면서도 교육학의 범위에 머물지 않고 교육의 이해를 더 확장하기 위해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 상담심리학으로 이해와 실천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갔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물리학보다 교육학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진 후, 국내 신학대학에서는 줄곧 신학의 기초에서

기독교교육학에 집중하였고, 취리히대학교에서는 범위를 넓혀 실천신학으로,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이래로는 상담심리학으로 교육 및 연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갔다. 그는 인간교육관련 학문인 교육학, 신학, 심리학을 다 이해해보고 싶어 하였다.

세 번째로 연구의 기초적 관심에 있어서, 그는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실천적인 것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다. 그는 고등학교시절 이과로 진로를 정한 후 대학에서는 자연과학의 기초학인 물리학으로 나아갔으나 실천학인 교육학으로 넘어왔고, 신학을 기초한 실천학자인 교육신학자로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신학 안에서도 신학을 개괄적으로 공부하는 목회학석사과정 이후 신학석사에서는 기초신학인 구약학을, 신학박사에서는 비록 부전공이지만 기초신학인 신약학을 전공으로 공부하였고, 신학석사논문 주제는 실천학인 기독교교육학으로, 그리고 박사과정의 주전공은 실천신학을 선택했고, 실천신학에서 박사 논문은 유럽 학교 종교교육을 연구했다. 신학박사학위를 마친 이후에는 신학의 학문 범주를 넘어 또 다른 실천학문인 상담심리학으로 관심을 넓혔고, 더불어 일본 문화를 연구하여 교양과정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신학의 기초에서 실천까지 모든 전공을,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에서 인문학까지 다 이해하고 싶어 했다.

네 번째로 그의 활동의 지역 범위도 확장하는 형식이다. 그는 서울에서 출생한 후 6.25로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이래로 서울에서 대학을 마친 후 부산에서 본격적인 신학수업을 시작하였다. 연구년을 이용하여 스위스와 독일에서 연구하였고, 졸업 부산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해왔다. 부산에서 그는 일본어와 일본을 연구하여 일본기독교교육학자들과 교류하였고, 두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미국인 사위를 보았다. 부산에 거주하며 많이 운전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는 해외선교활동에 참여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뿐만 아니라 동유럽 루마니아에서 설교하고 가르쳤고, 강의와 설교와 교단 교류 일로 유럽 여러 나라와 북미와 오세아니아를 다녔다. 연구 및 활동

범위 확장을 위해 그는 평생 언어학습에 열심이었다. 고전어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신학전공에서 공부했고, 현대어로는 영어와 독일어와 일본어를 공부하여 그 자료들을 통해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도 해 온 세계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 모든 지역에 다 가서 일하고 싶어 했다.

다섯 번째로 그의 활동영역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형식이다. 그는 대학에서 연구하는 상아탑 내 학자이면서도 활동영역을 교회와 사회로 확장해 온 실천적 사역자였다. 그는 단과대학인 신학대학의 범위를 넘어, 대학 차원에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의 청사진 작성에 참여하는 기초적 작업으로부터, 고신대학교의 학교행정에 직접 참여한 교무위원으로서 행정부처 거의 모든 분야, 그리고 단과대학장과 특수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지속적으로 맡아 일했던 유능한 교육행정가였다. 그는 스위스 유학중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교수와 학교행정의 일을 하면서도 설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한 실천적 설교자로서 수많은 교회를 순회 방문하며 혹은 일정기간 담당하여 설교한 명설교자였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활동을 교회와 학교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부산시와 영도구 지역사회 시정과 선거관리에 감시자로 참여하였고, 시민운동을 통해 민주시민사회의 성숙에 기여한 시민사회운동가였다. 그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고신교단의 교육정책과 실천을 관장하는 총회교육원장으로서의 일을 시작하였다. 돌아보면 그는 대학과 교회와 교단과 사회, 모든 곳에서 다 일하고 싶어 하였다.

강용원 교수의 생애, 교육, 연구 및 실천이 보여주는 위의 실제 면모들은 (1) 그의 관심분야 연구와 실천의 내면에서 작동해 온, SFC 회장의 칼빈의 그림처럼, 주님께 드러진 유별나게 열정적인 심장, (2) 똑 같이 주어진 시간의 한계 내에도 몇 사람의 땀을 해내는 영리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3) 새로운 분야, 그리고 관심 있는 문제에서 끝까지 달려가 보고 싶어 하는 강렬한 호기심, (4) 비록 표정과 말투는 유약한 듯 부드럽지만 영역 밖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 있는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정리하면 강용원 교수는, 고신대학교와 고신교단의 사람이면서도 신학, 학문,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대하여, ‘비신학적 의미’로 오이쿠메니코스(oikoumenikos)를 지향하였다.¹⁾

2. 개혁주의신학: 칼빈과 성경

강용원 교수는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자로 출발하는 첫 번째의 논문 주제를 칼빈의 교육으로 정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받았던 그의 첫 번째 석사학위 논문은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1977)였다.²⁾ 우리나라에 미국 기독교교육학을 소개하는 일에 있어 주도적이었던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이 형성되던 초기에 기독교교육의 기초적인 개론서인 『기독교교육의 기초』(1973)를 펴내었던 김형태 교수의 지도로, 그리고 어린이의 발달, 여성교육, 교회주일학교와 가정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진 주선에 교수의 따뜻한 멘토링을 받으면서도 강용원은 칼빈을 연구주제로 선택하여 그의 교육활동을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는,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기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칼빈을 첫 연구의 주제로 삼았던 배경에 대하여 청소년시절 SFC 임원활동과 한명동 목사의 영향을 추론할 수도 있고, 비록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1) 고대교회에서는 원래 긍정적인 의미였으나 20세기에는 정통신앙을 유보한 채 신학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괄주의를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버린 ‘에큐메니컬(ecumenical)’과 구별하기 위해 영어식 표현을 피하여, 여기서는 ‘세계’와 ‘우주’를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쿠메네(oikoumene)가 가진 원래의 긍정적인 의미를 지칭하는 의도에서, 그리스어 그대로 오이쿠메니코스(oikoumenikos)라고 바꾸어 썼다.

2) 강용원,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미출판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1977.

공부하지만 신학적 입장에서는 그가 고신교단의 신학도라는 정체성 인식, 그리고 고신교단 교회교육학 개척자로서의 기초적인 과제 인식, 그리고 과정을 마친 후 고신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복합적인 필요도 작용했을 것이다.

개혁주의적 입장은 역사적인 순서에서 그리고 신학적 원천에서 볼 때 칼빈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칼빈이 당시에 교육관련 저술들을 남긴 가장 탁월한 교육학자가 아니었고 특히 현대기독교교육이론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교육에 대하여 연구하는 이유는 그가 개혁주의신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며, 그의 활동과 통찰은 개혁주의교회를 지향하는 고신교단 기독교교육학 형성에 꼭 필요한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강용원 교수는 자신의 교육신학의 기초를 칼빈에 두려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퍼즐 맞추기처럼 보이지만, 학자로서 칼빈과의 첫 만남은 간접적이기는 해도 나중에 그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스위스로 유학하도록 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했을 것이다. 스위스의 취리히대학교가 현대신학을 대표하는 신학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로의 유학을 시도했던 것은 현대신학에 대한 매력보다, 비록 부차적이기는 해도, 스위스에서 역사적이고 현상적인 칼빈도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강용원 교수는 개혁주의 교육신학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갔다. 그래서 일반교육학의 패러다임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연구하는 접근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의 패러다임으로 교회교육을 연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교육학 석사를 마친 이후에 다시 일반대학교의 교육학 대학으로 되돌아가 연구한 이후 고신대학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곧 바로 고신대학교로 돌아와 연이어 두 개의 신학석사 학위과정(목회학, 구약신학)을 마쳤다. 강용원 교수는 신학전공 과정에서 신학적 기초로부터 교육문제를 해명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기독교교육학을 연구했다. 주된 목적이 교육문제의 신학적 해명에 있었으므로 그는 그 의미를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신학의 다양한 분과의 접근 방법들을 모두 활용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교의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모두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 그의 연구는 이 모든 영역으로 부터 기독교교육의 원의미를 해명하고 그 함의를 풀어내고 있다. 그의 연구를 검토하면 신학의 기초전공 각 영역에서 교육의 의미를 해석하고 추론하여 확장하는 것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위의 4가지 신학의 기초 이론적 세부 연구 분야 중 강용원 교수가 특별히 더 천착했던 분야는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전공의 연구물들과 연구방법을 교육연구에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능력을 구비하려는 의도에서 이 전공들을 위한 별도의 학위과정을 마쳤다. 구약신학은 신학석사과정에서, 그리고 신약신학은 박사 과정의 부전공으로 마쳤다. 그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는 목적에서 이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했다고 판단된다.

강용원 교수에게 개혁주의신학은 성경으로부터의 이해를 뜻했다. 강용원 교수는 기독교교육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언약과 교육명령을 신명기서로부터 해석하여 그 함의를 끌어내고,³⁾ 교회와 교육 직분의 역할과 기능을 에베소서 4장으로부터 해석하여 끌어내고,⁴⁾ 상담 과정의 함의를 요한복음 4장으로부터 해석하여 끌어내고,⁵⁾ 목회상담과 사랑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부터 해석하여 끌어내는 방법으로⁶⁾ 교회교육과 목회상담의 핵심 개념들의 의미를 성경으로부터 설명하고, 교육과 상담의 성경적인 구조를 세워보려고 시도하였다.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에서 강용원 교수가 사용한 방법은 자유주의신학,

3) 강용원, 『신명기신학에 나타난 계약의 문제』, 미출판 신학석사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1981.

4) 강용원, “교회교육의 성경적 기초에 관한 연구: 엡 4:1-16”, 『기독교교육정보』20(2008), 147-197.

5) 강용원,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전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5(2013.4), 37-73.

6) 강용원, “목회상담과 사랑”, 『성경과 신학』73(2015.4), 35-82.

신정통주의신학과 현대신학이 취한 바, 성경에 대한 비평학적 혹은 실존심리학적인, 혹은 특정 문학적 혹은 수사학적 해석방법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바, 문법적·역사적 해석으로부터 그 신학적 의미를 추론하는, 정통적인 주석 방법이었다. 그는 더 나아가 그 해석을 기초로 교회교육과 목회상담의 원리들도 끌어내고 싶어 하였다. 그는 성경이 기독교(교회)교육의 기초이며, 풍부한 함의를 제공하는 원천이며, 참된 기독교교육을 위한 원리와 법칙들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성경해석방법의 도구 활용능력은 강용원 교수로 하여금 설교하는 일을 좋아하는 목회실천가가 되게 했다. 그는 학자로서 학교에서 일했지만 단기 시무의 목회자처럼 교회변동기에 고정적으로 설교하였고, 많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였다. 그의 설교는 특정주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목회에서 다루어야 할 전범위에 걸쳐 있었다.

강용원 교수는 칼빈으로부터 출발하여, 개혁주의신학을 토대로, 더 나아가 성경해석을 주된 방법으로 삼아 기독교(교회)교육의 이론적 작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는 개혁주의 교육신학자였다.

3. 교회교육과 교육목회

강용원 교수는 관심 있는 주된 연구영역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먼저 기초적인 개념과 전체 구성의 틀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도한 후,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화, 확장하는 방식을 따른다. 기독교교육학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은 먼저 연구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독교교육연구시리즈의 소책자 1번으로 재출간되기도 했던, 「기독교교육학의 성격과 구조」였다.⁷⁾

그는 기독교교육은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이고, 교육은 기독교신앙을 통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이 되게 하는 구속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역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닮은(Christlikeness) 인격을 형성하며, 계시의 빛 아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도록 돕는 교회를 기초로 한 신앙공동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정의하였다.⁸⁾

기독교교육학에 대하여는, 비록 실천신학의 한 부분이었으나 교육학적 전문성의 특성에 맞게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립되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가 이해하는 기독교교육학은 언제나 신학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교회의 학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교육학은 기독교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교육적 행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회의 행위를 탐구하는 ‘교회학을 위한 학문’이며, 기독교의 ‘실천에로의 이론’이다”고 진술하기도 했다.⁹⁾ 이에 미루어 그에게 있어 기독교교육(학)은 우선적으로 교회교육(학)을 의미했다.

기독교교육학이 신학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고, 교회를 위한 실천학문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기독교교육학은 실천신학 혹은 목회신학과 중첩된다.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 목회신학의 세 가지 표현은 이 표현의 용법 맥락을 고려할 때, 실천은 이론 외의 부분 혹은 이론의 적용을, 목회는 교회에서의 목사의 사역과 역할과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기독교교육학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초점을 맞춘 형성적 노력이다. 교육신학자로서 강용원 교수는 이 세 가지 표현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신학의 실천, 교회의 목회를 교육의 패러다임과 원리로 재편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에 일치하는 것이며, 담보적인 목회와 실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확신하여 교육목회를 제안하였다.

7) 강용원, “기독교교육학의 성격과 구조”, 『고신대학 논문집』12 (1984), 29-69.

8) 강용원, “기독교교육학의 성격과 구조”, 42.

9) 강용원, “기독교교육학의 성격과 구조”, 50.

그는 교육목회를 “목회의 참된 본질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목회의 본질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의미를 더욱 인식, 수용, 적용, 개발, 확대해나가는 탐구와 실천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교육목회는 교회 전체의 기능으로서의 교육적 사역을 개발하고, 교육적 원리를 교회 사역의 전 분야와 목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나가는 총체적 목회사역으로, 개별 신자와 전체 교회의 신앙적 성숙을 추구하는 일이다”라고 정의하였다.¹⁰⁾

이 논문에서 그는 21세기 한국교회는 교육목회라는 패러다임 재구성으로 목사가 주도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신앙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교회사역인 예배와 선포와 교제와 봉사의 결실을 더하고, 목회의 영역인 예배, 설교, 심방, 상담, 의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강용원 교수는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기초 및 교육활동 분야에 대한 개관을 제공하는 여러 개론서들을 출간하였다. 『교회교육의 새로운 전망』(1993)에서는 교회교육의 기초와 구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 이후에, 영, 유아 및 청소년, 그리고 성인교육에 대한 개관을 제공하였다.¹¹⁾ 10여년 이후에 출간된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2004)에서는 한국기독교교육의 역사, 교육신학, 현황과 과제, 교육목회, 학교종교수업을 다루었다.¹²⁾ 그가 편집한 『기독교교육학개론』(2007)에서는 기독교교육의 기초, 과정, 현장, 실천을 고루 다 다루었다. 한국교육 연구자로서 우리나라 기독교교육 혹은 교단교육의 역사(1999, 2004)를 정리하기도 했다.

교육신학자로서 그는 유아구원과 세례(1993), 견신례(1990), 입교교육, 예배(1992, 1995, 2000, 2012)의 교육신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교육전문잡지인 『교회교육』에서는 회심(1996)을 다루기도 했다.

10) 강용원, 『21세기 한국교회의 ‘교육목회’적 대응』(부산: 고신대학교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2003), 6-7.

11) 강용원, 『교회교육의 새로운 전망』(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위원회, 1993)

12) 강용원,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서울: 도서출판 기독교, 2004).

예배와 성례가 갖는 교육적 함의는 교육신학의 주요한 연구과제였다.

강용원 교수는 교회교육실천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전문잡지 『교회교육』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교육에 대한 글들을 많이 남겼다. 자세히 검토해보면, 비교적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적었고, 주일학교교육에서의 요구에 부응하여 어린이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강용원 교수는 성인과 장년과 노인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 분야는 특별히 교육신학자가 교회교육 담당자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분야였기 때문이다. 또 그가 연구논문으로 연구했던 교육대상은 성인교육(1991, 2014), 다문화(2012), 세계화(2011), 북한이탈주민과 통일(1992, 2010) 등 새롭게 등장한 교육 대상들이었다.

강용원 교수는 교육신학자여서, 그의 주된 관심 영역이 기독교신앙과 교회에 있었으므로, 기독교교육의 또 다른 영역인 가정교육과 기독교학교에 대한 연구에는 소극적이었다. 기독교학교에 대한 연구는 학교 자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보다 기독교학교의 종교수업(1989, 1994, 1995, 1996)에 집중되었고, 그 외에는 고신대학교의 필요에서 천착한 기독교대학교의 신학적 기초(1996), 기독교적 학문(1992) 주제였다. 가정교육을 표면적인 주제로 다룬 글들이 교사교육전문잡지인 『교회교육』에는 발견되지만 논문과 저서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용원 교수는 교회교육 및 교육목회의 주제에 대한 기초적 토대확립 이후에, 해당 분야의 주요 요소 및 주제들을 폭넓게 다루면서 개관하였고, 일상적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문제들을 더 포함하는 방법으로 전체를 교과서화 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의 저서들은 전체를 포괄하는 교과서와 같다.

4. 교회교육방법

강용원 교수는 실천신학자로서 교회교육과 교육목회를 연구한 학자였으므로 기독교교육학에서도 실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교육과 관련된 기초 신학적 연구들도 교의학이나 철학신학의 주제나 연구방법보다 성경신학과 역사신학의 주제나 연구방법을 더 선호했다. 교육학 내에서도 실천에 부합되는 부분은 단연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학이 실천의 학문이라고 할 때 가장 중심에는 교육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주로 교사교육(2010, 2014)과 교육방법에 대한 관심을 심화, 확장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교육의 과정과 실천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와야 할 필요에 대한 응답이었을 것이다.

교육방법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일찍이 시작되었다. 기독교교육학의 첫 번째 석사논문 주제도 칼빈의 신학보다 그의 교육활동이라는, 실천적이고 방법적인 역사적 현상에 주목하여 연구했다. 교수직을 시작하면서 이미 자신의 연구방향을 교육방법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듯, 학자로서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거의 첫 번째 논문이 교육방법이론의 기초인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연구한 것이었다.¹³⁾ 그가 박사논문 주제를 학교의 종교수업에 맞춘 것도 교육방법 분야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리츠 오서와 파울 그윈더의 종교판단 발달단계에 대한 그의 선구적인 연구도 교육방법의 기초적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가 유, 아동과 청소년, 성인과 노인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 종종 글을 쓴 것은 해당 연령대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13) 강용원, “커뮤니케이션 원리와 신앙교육”, 『고신대 논문집』10(1982), 153-169.

수 있다. 그는 고신교단 총회교육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글과 강의를 통해 교사교육에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대표적인 전문 학자였다.

강용원 교수는 신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교육신학자로서, 성경에서 추출되는 교육방법으로 예수님의 교육방법(1999)에 주목하였다. 그가 교육방법 적용에 있어 집중한 것은 성경교수법이었다. 성경공부, 성경교육, 성경교수 등의 주제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글들을 발표하였고, 교회교사를 위한 성경교수법 교과서를 출간하였다.¹⁴⁾

뿐만 아니라 그는 1980년대에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주목받았던 리더십, 소그룹,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멀티미디어(1996), 시뮬레이션게임(2006)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주목하고 그 교육방법의 이해와 적용을 시도하였다.

교육방법에 대한 이론 및 방법의 집대성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가 교과서로 개발한, 그의 저서 『기독교교육 방법론』(2008)이다. 그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교육학의 교수-학습과정, 그리고 성경의 예수님의 교수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으므로 그 세 가지를 기독교교육방법이 고려해야 할 기초로 간주하였다. 그는 교육방법을 교육의 수단과 도구로 간주하였으므로¹⁵⁾ 방법절대주의 혹은 특정방법 절대화에 기울지 않고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그 저서에서 전통적인 방법인 강의법, 이야기법, 질문법, 사례연구법, 성경공부방법을 정리하였고, 집단교육방법으로 그룹방법, 협동학습, 공유적 삶의 접근법, 팀티칭을 소개하였다. 창조적 표현활동으로 마임과 극화, 쓰기, 놀이, 미술, 음악을, 그리고 참여와 탐구 교육방법으로 역할극, 학습센터, 간세대적 학습, 가치 명확화 교육, 시뮬레이션 게임을 소개하였다. 매체와

14) 강용원, 『유능한 교사의 성경교수법』(서울: 생명의 양식, 2008).

15) 강용원, 『유능한 교사의 성경교수법』, 19-20.

정보화와 관련된 매체와 인터넷 활용방법도 소개했다. 이 저서는 전통적 방법으로부터 오늘날의 교육공학에 이르기까지 이론화된 교육방법을 정리하고, 교회교육 장면에서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교회교사가 필요에 맞추어 그 새로운 교육방법들을 실험해볼 수 있는 지침서가 되게 하였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방법 연구에서도 강용원 교수는 이론적 기초에서 출발하여 칼빈과 성경교육방법으로, 그리고 신학의 경계를 넘어 일반교육방법과 최근의 다양한 교육방법에 이르기까지 확장하여, 그 모두를 정리함으로써 교과서화 하는 패턴을 따랐다.

5. 목회상담신학: 죽음과 사랑

강용원 교수가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에서 목회상담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그 분야를 담당했던 한기태교수의 소천이후이다. 그러나 그가 목회상담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 보다 더 이른 시점, 곧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유학과 관련 있어 보인다. 그는 자신이 수학한 취리히대학교에 대하여 말할 때, 그 대학교에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분석심리학자 융이 박사학위를 받았으므로 그 두 사람과 자신이 동문이라는 우스개를 언급했지만,¹⁶⁾ 그것은 그들과의 관심의 공유라는 부분이 있어 마냥 우스개만은 아닌 듯하다. 강용원 교수는 대학 학부에서 물리학을 공부했고, 박사학위를 마친 이후부터 목회상담신학을 새롭게 연구하며 교수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물리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지

16) 강용원, 자기소개서, 고신대학교총장선거 제출문서. 2013.

않았고, 목회상담을 연구하는 동안에도 용과 분석심리학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용에 대한 연구는 먼 과제로 남겨두었는지도 모른다. 그 대신 그는 실천신학자로서 목회상담신학을 개척하려 했다.

목회상담신학의 기초적 개관의 연구물은 그의 글 “기독교상담의 성격과 구성”이다.¹⁷⁾ 이 논문에서 그는, 목회상담의 독특성은 성경과 신학적 기초에 있고, 영성은 상담을 기독교적으로 만들어주는 원천이라고 했다. 목회상담은 인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특히 사죄의 선포는 그 핵심이라고 보았다. 목회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만 아니라 삼위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독특성, 특히 성령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임상적 방법만 아니라 기독교공동체의 자원인 기도, 성경, 찬양과 예배 등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목회상담신학을 위해 그는 심리학과 신학의 관련성 안에서 성경적이면서 심리치료적인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론적 통합론에 무게를 두었다. 그는 특히 목회상담에서 영적 자원인 성경과 기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보였다. 상담과정에 대한 모델에서는 다양한 모델을 제안하여 논의하면서도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여인과의 대화를 모범으로 제시했다.

목회상담신학의 논의에서도 그는 전체를 개관하면서 개혁신학의 기초를 확인한 이후 목회상담만 아니라 기독교상담의 다양한 모델들을 공정하게 논의하였고, 일반상담과의 관계 안에서 체계화하는 패턴을 따랐다.

목회상담신학과 관련하여 그는 죽음, 사랑, 치유(2013), 소망(2014)이라는 주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이 네 주제들 중, 죽음과 사랑이 그 중심성에 있어서 단연 주목받았고, 치유는 상담과 관련하여, 소망은 사랑 이후의 주제로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목회상담신학에서 강용원 교수는 많은

17) 강용원,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371-445.

주제들로 관심을 확장하기보다 죽음과 사랑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물론 확장이 그의 패턴이라면 이후의 연구들은 확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간단하게 강용원 교수가 말하는 죽음과 사랑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자.

목회상담신학과 관련된 주제의 논문이 처음 등장한 것은 그가 스위스에서 박사과정 중에 발표했던 “죽음에 관한 목회”였다.¹⁸⁾ 죽음이라는 주제는 오랫동안, 그의 사고구조의 확장 패턴에서 볼 때 미완의 상태로, 그의 먼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그는 20년이 더 지난 이후 죽음에 대한 기독교상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⁹⁾ 죽음관련 의례는 목회의 주요한 사역이어서 목회상담학적 접근이 절실한 문제이나 우리나라에게서는 그 동안 전문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강용원은 목회상담신학이 다루어야 할 모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죽음을 목회상담의 핵심주제로 삼았다.²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서는 참된 위로가 있으므로 목회상담자는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소망을 드러내고, 전인적이고 관계적이고 시간적인 통전적 시각으로,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의 과제와 요구를 감안하는, 과정적, 과제 중심적 상담으로 다가 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¹⁾

강용원 교수가 교육신학과 목회상담신학에서 집착을 보였던 또 다른 주제는 사랑이었다. 그는 “교육적 사랑의 개념과 실천”이라는 논문에서 진정한 교육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교육적 사랑을 구체화하였다.²²⁾ 교육적 사랑은 교육에 대한 사랑, 교육대상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는 사랑이며, 교육에 대한 사랑은 소명과 열정이고, 교육대상에 대한 사랑은 목적의식을 갖는 분별력 있는 사랑, 미래와 가능성에 대한 사랑, 상호적이고

18) 강용원, “죽음에 관한 목회” 『교회문제연구』 1 (1987), 124-151.

19) 강용원, “통전적 기독교죽음상담을 위한 시론” 『복음과 상담』 12(2009.5), 9-39.

20) 강용원, 『통전적 기독교교육과 상담사역』 (서울: 도서출판 기독교, 2014), 288.

21) 강용원, 『통전적 기독교교육과 상담사역』, 318-319.

22) 강용원,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347-369.

적응적인 사랑, 필요에 응답하는 사랑, 인격적이고 용납적인 사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인적인 사랑이라고 구체적인 특성을 규명하였다.

사랑은 목회상담신학의 핵심주제이기도 했다. 강용원 교수는 “목회상담과 사랑”이라는 논문에서, 그리고 이 논문을 일부 조정한 “기독교상담과 사랑”이라는 제목의, 고신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정년퇴임 특강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석하여 성경적 사랑의 개념을 밝히고, 그 의미로 목회상담신학을 재구성하려 했다.

그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은 사랑의 필요성, 속성, 영원성, 우월성을 잘 논증하고 있다고 보았고, 사랑은 은사보다 필수적이고, 은사 수행의 바탕이 된다고 해석했다. 개인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회상담이라고 할 때 사랑에 기초한 목회상담은 사랑의 속성인 진리, 포용, 신뢰, 소망, 동반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인격적이고 선취적인 앎이 용기와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²³⁾

6. 나가면서

강용원 교수는 고신대학교와 고신교단의 선구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교육 신학자이자 목회상담신학자이다. 그의 생애, 교육 및 연구는 몇 가지 두드러진 개념과 패턴으로 잘 해명될 수 있다. 그가 집착했던 주요 개념은 칼빈과 성경에 기초를 두고 성경적 방법을 따르는 개혁주의신학, 교회교육과 교육목회, 교회교육방법, 그리고 중심에 죽음과 사랑을 위치해 둔 목회상담신학이다.

23) 강용원, “목회상담과 사랑”, 『성경과 신학』 73 (2015.4), 35-82.

이 각각의 주제 혹은 영역에서 강용원 교수는 출발점에서 개혁주의적 기초를 확인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확장하여 영역의 경계를 넘어가는 확장 패턴을 보였고, 전체를 이해한 후에는 교과서처럼 종합 정리해내는 방식을 따랐다.

그는 자신의 생애, 사역과 연구 이력, 그리고 그를 아는 제자들과 친구들에게, 모범학생에서 모범교수, 그래서 평생 모범적인 사람으로, 또한 개혁주의 전통과 정통에 머물면서도 편견 없이 경계 너머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포용적인 학자로, 또한 특유의 호기심과 부지런함으로 한정된 시간에 몇 사람 몫을 해낸 주님의 열심 있는 일군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가 고신대학교에서 정년퇴임 이전 마지막 직원예배 설교에서 표명했던 희망처럼, 무익한 종으로서 자기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더 진실 되고 충성스러운 일군으로 주님께 계속 기억될 것이다.